

함께하는
공감은
이웃

December 2020 vol.185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나 더 반갑고, 감사합니다.

지난 해 건강문제로 한 동안 병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퇴원 후 LH강남3단지로 이사했다.

막상 와서 보니 아는 사람도 없었고, 할 수 있는 일도 마땅히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외로움도 깊어졌다. 그 때 마침 이웃소개로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단지 내 복지센터에 오게 되었고, 거기서 진행되는 책모임에 참여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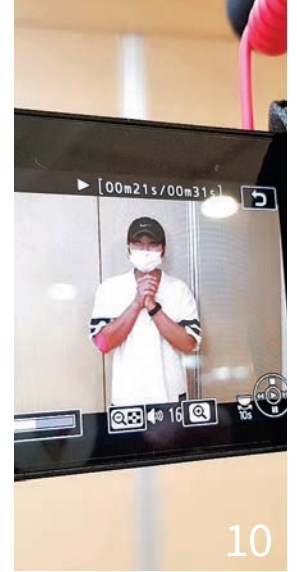
지난 일년간 열심히 참여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갑자기 모임에 나갈 수 없게 되었다.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복지센터 선생님들과 책모임 이웃들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졌고,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언제 다시 모임 수 있을까' 기다림으로 시간을 보냈다.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지난 10월부터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
매 주 만나온 사람들이었기에 오랜 시간이 지나 어렵게 만나게되니 몇 배로 반가웠다.
다시 만난 첫 날, 태화복지관 선생님들과 책모임 주민들간에 그간 잘 지냈는지 안부를 묻고, 건강해야 한다며
서로를 다독거렸다. 이렇게 얼굴을 마주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다린 보람을 느꼈다.

그리고 그 만큼 나에게 태화복지관 선생님들과 책모임이 소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정말 기뻐고, 다행이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처럼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비롯해 늘 함께해주고, 기다려준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다.

글 장옥순(LH강남3단지 책모임 참여자)





December 2020 vol.185

Contents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섬김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조화로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 | | |
|--|--|
| <p>04 이웃과 학습하는 즐거움이 있는 곳,
NH강남3단지 학습관</p> <p>06 ‘2020년 지역주민 욕구조사’
지역주민에게 묻고 의논하며
태화의 지속가능성을 꿈꾸다.</p> <p>08 “흠으로 공감하는 도예수업”을 소개합니다!

“건강한 놀이가 되는”
인라인 스케이트 수업을 소개합니다!</p> | <p>10 비대면 건강프로그램
‘서미연의 다이어트 파워댄스’</p> <p>12 Innovator square
- 사회복지사들의 모임 -</p> <p>14 TAIWHA NEWS</p> <p>20 후원에 참여하신 고마운 분들
자원봉사에 참여하신 고마운 분들</p> <p>22 후원 및 자원봉사 참여 안내
2020 후원금 수입지출 내역보고</p> |
|--|--|

2020년 12월 발행(통권 185호)

● 발행인 윤연주 ● 편집인 강하영 ● 발행처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 기획&인쇄 (주)알비티 Tel.512-3747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은 태화어린이집, 태화해뜨는샘, 강남구청소년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학습하는 즐거움이 있는 곳, 내강남3단지 학습관



내강남3단지 312동 도서관은 '우리 동네' 학습관입니다.
내강남3단지 찾아가는 복지센터에서는
주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습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주민분들은 코로나19로 누구를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학습관 덕분에 함께 수업을 들으며 배움도 얻었고,
만나는 즐거움이 있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글 복지사업2팀 용도연 사회복지사

☑ 우리 동네에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가까이' 있습니다.

- 단지 내 학습관이 운영되면서 집 앞에서 평생학습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스스로 학습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토대로 평생학습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 2017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욕구조사에서 '가장 필요한 욕구'로 문화·여가활동 자원을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 지역주민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2019년~2020년 스마트폰, 캘리그래피, 뜨개질, 건강관리교육, 홈패션, 친환경생활용품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 문화여가활동을 즐기고, 이웃들과 만나며 '관계'를 쌓았습니다.

- 학습주제에 따라 관심도가 높은 지역주민들이 모이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 정기적으로 이웃들과 만나면서 지역사회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 평생학습의 결과를 지역사회에 '나눔으로' 환원합니다.

- 학습한 내용을 공유하고 학습결과물을 기부하여 지역사회 이웃들과 나누었습니다.
- 지역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더불어 사는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Program

우리동네 일일특강

6/3~6/22(총 4회), 이문기/방균/진은영 강사

- 행복한 우리댕댕이(애견교육, 산책훈련)
- 스마트폰 사진촬영(인물사진 촬영기법 교육)
- 영화인문학(영화감상 및 인문학 해석)



스마트폰 완전타파

5/15~7/31(총 12회), 손승희 강사

기초부터 활용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
(배경화면 설정, 카카오톡 활용법,
문자메시지 보내기, 휴대폰 기능설정 교육)



손으로 짓는 행복, 흥패션

9/25~11/20(총 7회), 고효은 강사

재봉틀을 이용하여 패션잡화 만들기
(티 코스터, 스트링파우치, 성인 면 마스크,
양면예코백 만들기)



상생의 비결, 친환경생활용품 만들기

9/28~11/11(총 7회), 김선애/백수영 강사

환경을 보호하는 생활용품 만들기
(천연비누, 주방세제, 손소독제, 석고방향제,
진드기 퇴치제, 페브리즈 만들기)



< 참여 주민 소감 >

“코로나로 이웃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만날 수 있다는 자체에 감사했어요.”

“작품이 완성될 때마다 소녀같이 기쁘더라고요.
제가 만든 분홍색 예코백을 붐이 오면 들고 나가려고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내가 직접 만든다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어느새 수업이 금방 끝나버린 느낌이 들어 아쉬워요. 다음에도 또 참여하고 싶어요.”

2020년 지역주민 욕구조사



지역주민에게
묻고 의논하며
태화의 지속가능성을
꿈꾸다.

글 경영지원팀 변주희 대리



코로나19 이후 개인의 일상은 물론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를 실감하며 사는 요즘입니다. 태화 역시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의 경험을 마주하며 내·외부적인 변화와 흐름을 받아 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영역은 진보하기도 하였고 또 다른 영역에서는 후퇴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한 2020년을 보내며 복지관 역시 우리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해 심도 깊게 고민하게 되었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 점검하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복지관의 주인인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로부터 복지욕구를 확인하는 것.** 이를 위해 지역주민 욕구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주민 욕구조사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복지관에서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많은 연구에서 복지관 운영 및 프로그램이 지역주민의 욕구와 사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은 복지관의 존재 이유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필요성을 바탕으로 지난 9월, 태화의 1차 서비스 대상 지역인 수서동, 일원본동, 일원1동, 세곡지구(세곡·울현·자곡)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2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태화와 지역사회를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총 30명의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지의 내용은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에 대한 인지, 지역사회에 대한 욕구, 개인 및 사회의 강점, 복지사업에 대한 욕구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응답자의 일반 현황에 따라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설문 통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취합되기는 하였으나 각별히 주목해야 하는 내용은 **‘정부지원형태에 따라 느끼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정도 차이였습니다. 복지관은 약자도 살만하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이웃들의 삶을 잘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적인 위기 앞에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복지관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별 인터뷰를 통해 이웃관계에 대한 욕구와 이웃관계를 주선하는 복지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세대별 욕구를 중심으로 차기 연도 복지사업을 구체적으로 구상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주민 욕구조사의 결과는 수치적인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태화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실천의 근거와 이유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한 번의 조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 꾸준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사회의 변화를 살피며 복지실천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태화의 1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온 가치를 상기하며 지역사회, 지역주민과 ‘더불어, 함께’ 호흡하며 나아가는 태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 욕구조사에 참여해 주신 지역주민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 평생학습 프로그램 -

“흙으로 공감하는” 도예수업을 소개합니다!



글 복지사업1팀 강하영 사회복지사

Q. 선생님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는 태화에서 1997년부터 성인 도예 교실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도예교실을 맡고 있는 안정미라고 합니다. 20년 넘는 오랜 시간과 뜻깊은 순간들 덕에 태화에서의 도예수업은 직업의 의미를 넘어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Q. 도예수업과 진행방식을 소개해주세요.

A. 도예는 흙을 만지는 수업입니다.

미취학 아동부터 장애인, 성인, 노인, 가족 등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연령과 기능, 그리고 상황에 맞춰 진행됩니다.

흙을 만지는 기술을 배우고, 수업 중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도예수업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 존중과 공감이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태화를 찾아오는 이들과 태화가 찾아가는 이웃들과 함께 흙으로 함께하기 위해 기술을 가르치는데서 그치지 않고, 지금과 같이 서로의 삶을 이야기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코로나19로 수업이 어려웠을 때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내셨나요?

A. 이렇게 쉬어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모두가 그랬을 것 같아요. 수업을 하며, 학생들, 어머님들 만나며 지내온 일상이 텅 비어져서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점차 자연스럽게 집과 가족에게로 시선을 집중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며칠에 걸쳐 대청소를 했어요. 쓸고 닦으며

그 동안 미뤄뒀던 목은 때를 벗기는 작업들을 했고, 하다 보니 셀프 리모델링까지 진행하게 됐어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좋은 시간으로 보내고자 노력했고, 그러다보니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Q. 거리두기가 낮아지면서 다시 복지관에 올 수 있었던 첫 날의 모습이 기억 나신다면, 어떠셨는지 나눠주세요.

A. 첫 날은 정말 마음 한 칸이 찜 했어요. 전쟁 끝나고 만난 혹은, 전쟁 중에 만난 느낌이었거든요. ‘사람이 정말 소중하구나,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고, 많이 감사했어요. 특히 이전에 다니던 아이들을 다시 만났을 땐 ‘아프지 않고 잘 왔구나, 그래도 건강하게 지냈구나’ 싶은 안도감과 고마움에 두 팔 벌려 교욱 안아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씩씩하고, 건강하게 지내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갖게 되었죠.

Q. 마지막으로 복지관과 수업을 듣는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나눠주세요.

A. 지금 같은 때엔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많이 느끼곤 해요. 나도, 우리가족도 또 다른 사람들도 모두가 소중하고, 그렇게 소중히 여겨져야 한다는 걸 평소보다 더 중요하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서로에게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부족하지만 흙으로 함께하는 도예수업 시간에는 서로가 소중히 여김 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더 따뜻하게 맞이하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평생건강 프로그램 -

“건강한 놀이가 되는” 인라인 스케이트 수업을 소개합니다!



Q. 선생님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수업을 강습하고 있는 백남주 강사입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년 정도 태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Q. 인라인 스케이크 수업을 소개해주세요.

A. 월요일 16시, 17시, 18시, 수요일 18시, 19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6살부터 초등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매 수업은 예전에는 15명 정도 참여했는데, 지금은 코로나19로 10명 정도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통 인라인 스케이트를 처음 타는 친구들도 첫 수업을 듣고나며, 혼자서 걸어가는 수준을 목표로 두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Q. 코로나19로 수업이 어려웠을 때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내셨나요?

A. 일을 시작하고 처음 맞는 휴식이기도 해서 ‘회복하는 시간으로 보내야지, 금방 돌아가겠지’ 생각했었는데, 점점 길어지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저 같은 프리랜서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많이 위태롭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언제 즈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었고, 가장 먼저 가정에서 요리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가 만든 음식에 더 익숙해질 만큼 가사와 육아에 많은 시간을 쓰게 됐습니다. 그 시간도 뜻 깊고, 좋았지만 빠른 시일내에 안정화되어 제가 더 잘 할 수 있는 본업의 역할을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Q. 거리두기가 낮아지면서 다시 복지관에 올 수 있었던 첫 날의 모습이 기억 나신다면, 어떠셨는지 나눠주세요.

A. 처음 마음을 떠올리며 기다리고, 고대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임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대부분 새로운 아이들이 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전부터 수업을 들었던 아이들이 잊지 않고 와줘서 놀라기도 하고, 고마웠습니다.

Q. 마지막으로 복지관과 수업을 듣는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나눠주세요.

A. 올 해는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차츰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으면서 “함께 잘 견뎌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비대면 건강프로그램 ‘서미연의 다이어트 파워댄스’

글 평생학습팀 이수연 대리

10월 14일, 그동안 조용했던 다목적체육실에서 신나는 댄스 음악이 들려옵니다. 7개월 만에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S라인을 잡아주는 서미연의 ‘다이어트 파워댄스’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시작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대면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태화의 건강프로그램이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강화된 방역조치로 잠정중단 되었습니다. 특히 비말전파가 높은 프로그램의 경우 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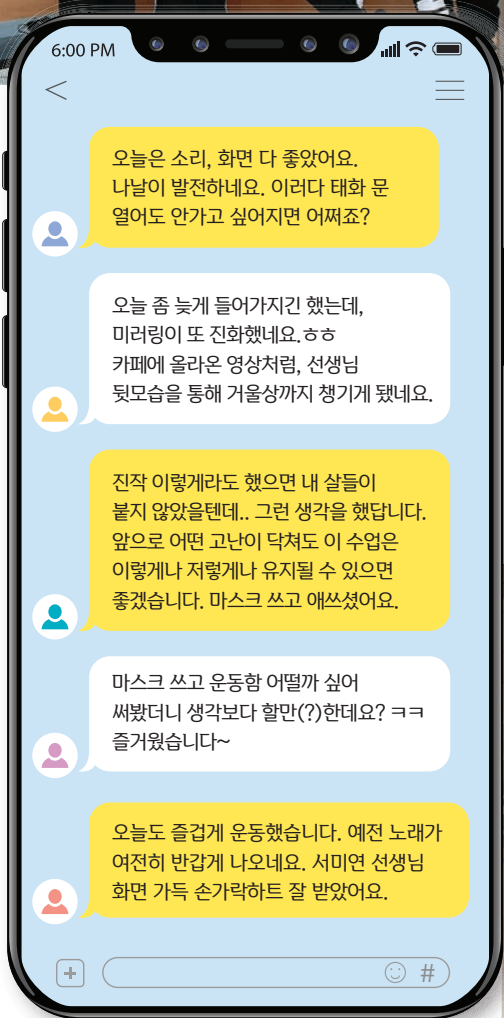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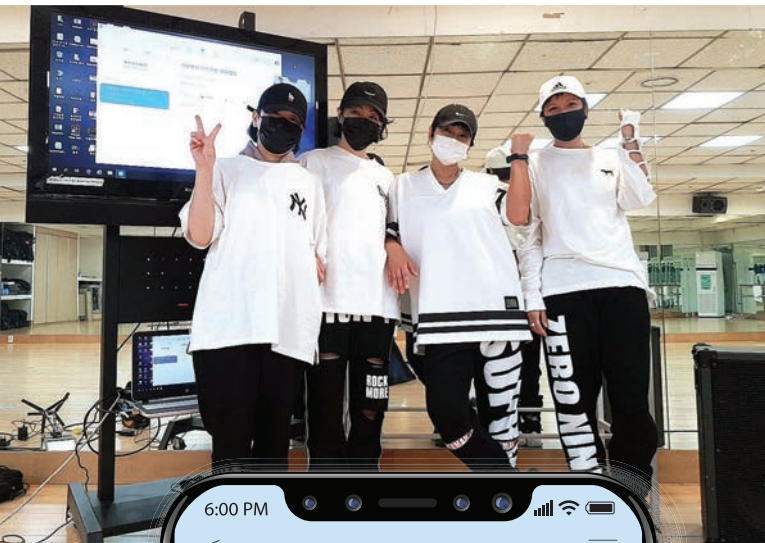
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졌고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다는 회원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에 태화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며 안전하게 지역주민들

에게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대면 수업을 기획하였습니다.

태화 ‘다이어트 파워댄스’는 온라인 ZOOM을 활용한 쌍방향 수업으로 회원과

함께 소통하고 운동하며 현장에서 함께 뛰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접수 시 회원들에게 ZOOM 사용 매뉴얼을 제작하

온라인 ZOOM을 활용한 쌍방향 비대면 수업.
회원과 함께 소통하며 운동하므로 현장에서 함께 뛰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태화 비대면 'S라인을 잡아주는 서미연의 '다이어트 파워댄스' 프로그램 수강 회원 카카오톡내용

여 배포하였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안내하여 어려움 없이 ZOOM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태화 다목적 체육실에서는 강사의 파워풀한 동작과 신나는 분위기가 그대로 전달되는 '다이어트 파워댄스' 수업 화면이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비대면이 가능할지 걱정하셨던 회원 분들도 수업을 수강하면서는 '코로나19 상황에 집에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어서 좋다. 집에만 있어 운동이 필요했는데 여러 회원들과 함께 하니 운동 효과도 높일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문화를 빠르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장기화 되면서 일상의 모든 활동이 비대면, 비접촉 방식으로 변화하고 언택트 문화가 우리에게 이미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2020년 11월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로 다시 격상 되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멈춤'이 아니라 '언택트'로 지역주민에게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태화의 비대면·언택트 건강 프로그램들을 더욱 활성화하여 지역주민들이 전염병의 염려 없이 어디서든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화에 가면?
이노베이터스퀘어가 있다던데?!

도대체 이 모임은 뭐야?

태화MAN 도와주세요!!

Innovator square

-사회복지사들의 모임-

글 복지사업1팀 오정철 팀장

안녕하세요? 태화맨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노베이터스퀘어가
어떤 모임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Q. 태화의 이노베이터스퀘어 모임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모임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A. 마스크 착용으로 유난히 힘들고 더웠던 2020년 7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1회 모임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12회의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Q. 모임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A. 코로나19로 인해 복지관은 긴급 돌봄을 제외하고는 장기적으로 (긴급)탄력운영을 하게 되면서 대면으로 전달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비대면으로 당사자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변화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면서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모임에는 누가 참여하나요?

A. 경영지원팀, 평생학습팀, 복지사업1팀, 복지사업2팀, 태화아름드리कु센터에서 근무하는 총 11명의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옆 페이지 하단에 있는 사진을 통해서도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Q. 그동안 어떤 이야기들로 모임이 진행되었나요?

A. 어떤 모임이든 모임의 목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책을 읽는 모임은 책을 통한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것, 운동모임은 건강해지는 것이 목적이겠죠? 이노베이터스퀘어의 첫 모임도 모임의 목적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태화에서 사회사업하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을 시대 흐름에 맞추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내야 하는 과업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고 다들 처음 경험해보는 상황이기엔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효과적인지, 좋은 방법인지 알지 못한 채 시도하며 걸어 가보면서 많이 나누고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권지혜 팀장

여러 이야기를 나눈 끝에 먼저 태화의 사회복지사들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복지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적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백석대 조성우 교수님을 모시고 비대면 사회복지서비스 기획에 대한 교육을 들었습니다. 언택트 기술과 서비스가 생각보다 빨리 시작되었을 뿐 언젠가는 도래할 과정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언택트 마케팅, 서비스 기획의 대상, 프로그램실 구성, 온라인 플랫폼 종류부터 언택트 서비스의 강점인 시간, 공간, 비용까지 전반적인 내용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사회복지사가 먼저 언택트에 필요한 역량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코로나19로 변화된 여러 모습들을 스테디하고 공유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영상물, 도서, 뉴스로 스테디 종류를 나누었고, 이에 따라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팀별로 자료를 조사하고, 스테디를 진행한 뒤 전체와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당장 적용하고

시도 해 볼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였고, 제일 먼저 태화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또한 환경, 지금 태화는, 랜선합창, 브이로그 콘텐츠에 대한 팀을 나누었고, 팀별로 영상을 제작하여 올려보기도 했습니다.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을 지나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사업을 묻고·의논하는 지역주민 육구조사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변화된 환경과 언택트를 학습하고, 거기서 얻은 배움을 바탕으로 직접 실행에 옮기는 과정을 통해 변화에 알맞게 대응해 나가는 'Innovator(혁신가)'로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Innovator Square 모임'은 언택트 시대에 태화만의 사회사업을 위한 교육과 모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임의 끝은 알 수 없으나, 마침표를 찍는 날까지 모두가 오고 싶은 모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모임을 통해 태화 100년의 역사와 더불어 새로운 태화가 이뤄지기를 하나님 앞에서 소망해봅니다.



<왼쪽부터>
행복총천소 이수연, 만능캐주군 강하영,
인번술사 변주희, 아이디어뱅크 이사라,
탐구생활 관리자 동해연, 사회번역 이지연,
공감전시 용도연, 비타민 차지현, 에너지이저 오정철

TAIWHANews

살맛나는우리동네 '명랑마켓'

10월의 마지막 날, 강남대시앙파크 5단지에서는 맑은 가을하늘 아래 주민 간 화합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단지 내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모임 '오리엔'에서는 직접 만든 디퓨저와 고추장을 이웃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베틀시장도 함께 진행이 된 가운데, 사전 신청한 단지 내 일곱 가족들은 집에서 쓰지 않은 물건을 이웃들에게 판매하고, 수익금 일부를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가치 있는 실천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웃 간의 관계가 소홀해지

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차가워진 요즘, 살맛나는우리동네 '명랑마켓'은 단지와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온기를 불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태화와 '오리엔' 주민모임을 통해 지역사회가 더욱 따뜻해질 수 있도록 많은 응원부탁드립니다.



줌(ZOOM)을 이용한 비대면 지역사회연계활동



태화어린이집은 코로나19로 인해 진행하지 못했던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인 '흡연예방 안전교육'을 강남보건소와 연계하여 10월 30일에 진행하였습니다.

화상 화면으로 보건소 선생님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흡연의 위험성과 간접흡연이 우리의 몸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빠는 맨날은 안 피우시는데 그럼 괜찮아요?”하고 질문도 하고, “우리 아파트에 어떤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는데 그 옆을 지나갔어요. 냄새가 났어요.”하고 말하며 인상을 찡그리면서 “앞으로는 여기서 피지 마세요! 하고 말 할 거예요. 우리 몸은 우리가 지켜야 해요” 이야기 나누며 그 어느 때 보다 흥미롭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태화유아체능단 '추수감사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 고린도전서 3장 7-8절



태화유아체능단에서는 매월 기독교 영성이 반영된 성경 동화를 매개로 한 인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 주제에 따라 동화를 듣고 교실 내에서 실천 과제를 함께 정하고 과제를 잘 실천 할 수 있도록 입으로 말하는 어린이, 생활 중에 잘 실천한 어린이 중 인성왕을 선정하여 시상 및 격려합니다.

지난 11월 17일(화) 인성교육과정의 절기예배로 추수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엄마아빠가 농사를 짓지 않지만 농부아저씨들의 수고와 선물과도 같은 자연이 있어 우리가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안전하고 즐거운 유아체능단 생활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태화유아체능단 어린이 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를 보살펴 주시고 저희에게 좋은 엄마 아빠와 친구들, 선생님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가 마음 속에 가득 차게 해 주세요.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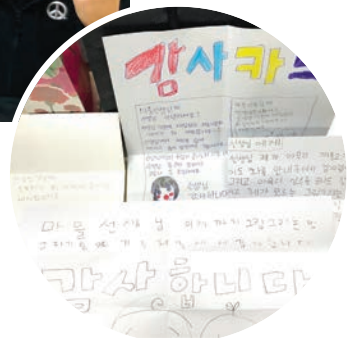
아멘.

태화의 다양한 활동 소식을 전합니다

TAIWHANA NEWS



※ 유튜브 '태화키움' 채널을 통해
더 많은 활동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화아름드리키움센터 마을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마을선생님 프로그램

태화아름드리키움센터는 아이들이 주도하고 함께 이루어나가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마을선생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마을에서 어른들과 제자와 선생님, 이웃으로 관계 맺으며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기술을 배우는 활동입니다.

2020년 8월부터 '만화그리는 법', '정리정돈 하는 법', '맛있는 과일 고르는 법', '반찬 만드는 법'을 소재로 배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ZOOM을 활용한 비대면 활동 또는 소그룹 활동으로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만났습니다.

마을선생님을 통해 아이들이 직접 서랍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고, 자주 먹는 반찬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동영상으로는 배울 수 없는 삶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공부만 하느라 놀 시간이 없었던 아이들이 무언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해보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의 관계, 아이들과 부모님의 관계, 아이들과 마을 어른들의 관계가 생기고 더 돈독해졌습니다.

'마을선생님'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재미있고 정답게 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강남복지재단과 함께 시작한 강남구 엄마, 직장인 대상 자조모임 사업



태화해뜨는샘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관계 맺으며 만들어 갈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고민하며, 해뜨는샘 안에서만 머물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좀 더 지역주민에게 다가가 위한 사업으로 강남복지재단 지원 '강남구 지역에 거주하는 엄마들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자조모임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신건강 자조모임 사업은 직장인들이 퇴근 후 마음을 풀어 놓고 나눌 수 있는 '마음쌀롱'과 '오픈쌀롱' 초등학생을 키우는 엄마들이 아이들의 양육에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슬기로운 엄마생활', 엄마가 아닌 자신을 되돌아보며 글을 쓰는 글짓기 모임 '맘쌀롱'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처음에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얼굴을 보며 모임을 가지는 것 또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모임에 함께 했던 분들은 "온라인이었지만 모이는 시간 동안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에게 집중할 수 있던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하며, 또 다른 모임을 기대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발판 삼아 지역주민들과 더 많은 것들을 함께 하는 다양한 모임을 만들어가고자 노력하는 태화해뜨는샘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 지역사회 곳곳에 희망을 전하는 희망나눔소식

올해는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이웃들을 거들고자 물품전달을 통해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8월에는 '네이버 해피빈' 모금을 통해 마련한 후원금으로 더위를 날려줄 여름이불, 선풍기를 구입하고, 여름나기 물품이 부족한 세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집에 선풍기가 없어 찜통인 여름에도 손선풍기로 버티고 있었는데 크고 좋은 선풍기를 지원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인사를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9월에는 강남구에서 진행한 「"함께해요." 희망기부 릴레이」 모금액으로 생필품, 식료품을 구입하여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나누었습니다. '미미위 에코백'을 가득 채우고 손글씨로 작성한 응원글도 함께 담았습니다. 지역사회 내 100세대에 직접 방문 전달하며 안부를 여쭙었습니다.

선풍기와 여름이불, 지원품으로 어려운 상황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 곳곳에 이웃을 응원하는 마음, 진심으로 서로 돕는 따뜻한 손길을 전하며 지역사회 피어난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물 한 잔에 기운을 차리고, 매서운 겨울날 작은 손난로로 몸을 녹이듯, 어려운 상황 속 나눔의 손길로 오늘도 지역사회는 희망의 걸음을 나아갑니다.



태화의 다양한 활동 소식을 전합니다

TAIWHAN NEWS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녀와 부모, 이해의 대화를 위한 토크콘서트”

강남구청청소년센터(이하 쉼터)에서는 지난 11월 6일 지역사회 학부모님을 모시고 자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현대사회의 가정은 소규모화 되어가고 기능도 약화되었으며, 특히 가족관계의 유대감이 부족해지면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부정적인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정 내 갈등은 부모·자녀 간 자주 나타나고 있으며, 부모와 대화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부모와 소통이 안 된다고 느끼는 청소년의 응답비율이 82%(『부모의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이 청소년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학회, 2012.)로 높게 나온 것을 보면 자녀들이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쉼터는 부모님들이 가지신 고민을 듣고 자녀를 어떻게 이해하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하며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쉼터에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학부모님과 직접 소통하고 자녀들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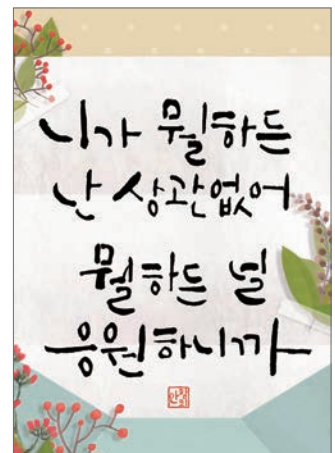
여성한부모 자조모임 '굿맘 - 캘리그래피 전시회 첫 걸음'

지난 8월, 여성한부모 자조모임 '굿맘'에서는 방역지침을 지키고, 주의를 기울이며 매주 화요일, 수요일 마다 모여 캘리그래피를 배웠습니다. 회기가 거듭될수록 늘어가는 실력과 함께 보낸 행복했던 시간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과 코로나19로 모두가 지치고 힘든 시기인 요즘 전시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작은 선물을 하고 싶은 마음에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캘리그래피도, 전시회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 두근거림을 전하고자 '첫 걸음'이란 제목을 걸고, 정성을 담아 써내려온 작품들을 내걸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멋진 글과 마음으로 위로의 손길을 건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도전은 어려운 일인데 또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내딛으신 '굿맘' 어머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전시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역주민 소감

전시회를 관람한 지역주민들이 남겨준 소감을 전해 읽으며, 첫 걸음이라 걱정되고, 쑥스러운 마음이 컸던 '굿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지지와 응원으로 함께해 주신 지역주민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굿맘'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도전하며 지금 내딛은 첫 걸음을 이어서 걸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후원에 참여하신 고마운 분들

Thanks to Sponsor

일반후원

강다영 강용석 강푸른 강하영 고경문
고기남 고미정 고애영 고우경 고유진
고은서 고인자 곽해민 구분환 권성오
권영탁 권지현 권지혜 권택민 권현수
권혜경 권혜진 길경자 길기태 김기운
김기수 김기원 김다속 김다현 김덕형
김동준 김동희 김명란 김명희 김미나
김민정 김선숙 김성욱 김성은 김세정
김수정 김승호 김애희 김연정 김영삼
김영우 김영일 김용기 김원석 김원정
김윤숙 김윤승 김은경 김은기 김은숙
김은혜 김인관 김재영 김주하 김준호
김지수 김태은 김태형 김평중 김필수
김한나 김현미 김현수 김현학 김혜란
김혜림 김혜영 김황희 김희수 나명경
나선미 나윤일 나윤찬 남수영 남연자
남현우 노유경 노혜진 도창현 라미희
류담주 류호연 류희만 문보영 문영숙
문용기 문용채 문이슬 문지희 박상선

박선영 박성분 박성원 박성희 박수연
박순례 박유림 박유신 박윤자 박은지
박종부 박주한 박주현 박지숙 박지영
박지원 박향미 박현경 박현주 방금호
방상익 방승찬 방정열 배경희 배호균
배효범 백강민 백재철 변주희 서유정
서정민 서창배 설원희 성기원 성미경
성춘선 손문경 손문기 손문배 손문준
손영지 손유진 송옥진 송성선 송충근
송혜란 신근화 신선균 신순철 심우찬
심장식 심정식 심형석 안성민 안정미
안정선 안지명 어윤희 여수경 여운선
여현정 오병두 오정철 오종진 오하진
용도연 우정현 유인숙 유혜선 윤민희
윤성주 윤승화 윤연주 윤은주 윤정아
윤지은 윤재영 윤천성 윤화수 이기영
이경숙 이경진 이광휴 이규용 이근아
이근영 이덕영 이명자 이미경 이미옥
이미진 이복숙 이사라 이선복 이성숙
이성주 이수연 이숙희 이영우 이영주
이원혜 이원희 이윤진 이은경 이은영

이은정 이은희 이정심 이정자 이종은
이지연 이진교 이현규 이형욱 이호진
인윤희 임덕순 임선빈 임선희 임종필
임채준 임태희 장수진 장영자 장용훈
장은희 장정아 장태원 장현규 장현숙
전미나 정경환 정민정 정민주 정민지
정승엽 정애경 정연현 정용제 정윤성
정의숙 정재훈 정진희 정혜욱 정희원
정희정 조경현 조기한 조송미 조아라
조유희 조윤경 조일호 조태욱 주덕윤
지동현 차유림 차지현 최명범 최미숙
최민서 최서영 최성실 최소영 최승만
최영복 최예령 최원경 최윤석 최지아
최지웅 최현민 탁현우 하순천 하혜령
한경희 한남희 한영희 허진선 홍승기
홍원순 황부자 황영웅 황현정
대청빠다귀감자탕 봉크 신성푸드서비스
재키헤어 제이원인터네셔널 피스코팩
해피빈 빈스테이블일원점 카페리에또

물품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동부지사 바바수
바이스타 베셀라트레이딩 서울트레이딩
브라보키즈 프리미엄 강남점
파리바게뜨 수서동성당점 위캔더스 정승희
충암고등학교 클래스 태영섬유 티나.M
형성물류창고

일시후원

권택민 김정민 손재승 송인화 이웅진
이현주 주하빈 책임어주는엄마
하트하트재단

결연후원

김미나 문석주 박용덕 손선희 이아진
임장현 최미양 최재훈 최정훈 현정순

2020년 8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자원봉사해주신 고마운 분들

Thanks to Volunteer

태화아름드리키움센터 초등돌봄반

한연희 지인순 원영숙 박숙희 강소연 이진희 최유나 김지민 이연주 윤예지

태화아름드리키움센터 장애초등돌봄반

김세인

온·오프라인 바자회

이수민 양수정 성채희 박서현 오서영 서주희 조건호

책임어주는엄마 (김남식 김성자 김수정 문삼일 문지영 박지훈 이미경 이현희 이해경 임승자 황영순)

마을놀이강사

모수현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

윤주연 박소연 고지현 이수현 이승원 김상도 정민주

태화유아체능단

최승은 전하경

LH강남3단지 찾아가는 복지센터

함민우

지역주민 인권교육

최찬비

“나눔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삶,
넉넉해지는 마음!
이웃을 향한 따뜻한 손길에 늘 감사드립니다.”





Sponsorship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은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개인, 기업, 단체의 후원과 자원봉사를 기다립니다.
 “서로 돕고 사는 세상, 바로 태화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자원봉사 신청방법



후원 신청방법



CMS 후원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자동이체로 후원금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이체수수료는 기관에서
부담합니다.



물품후원
기업과 개인 누구나
식품, 생필품, 도서,
의류등을
직접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통장입금
신한은행 140-003-839930
하나은행 303-890000-59604
국민은행 790-01-0035-287
우리은행 725-157495-13-003



온라인후원
네이버 해피빈
<https://hlog/taiwha/home>
카카오톡 같이가치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83313>

2020년도 후원금 수입지출 내역보고

(2020.1-2020.11)

후원금 수입		후원금 지출	
전년도 지정후원금 이월금	36,062,355	결연후원금	7,170,000
전년도 비지정 후원금 이월금	47,306,937	교육문화사업비	11,740,500
지정후원금	15,884,255	사례관리사업비	62,437,003
비지정후원금	72,795,180	서비스제공사업비	4,090,787
결연후원금	6,890,000	지역조직화사업비	1,232,500
외부지정후원금	5,162,927	후원홍보비	12,121,160
예금이자	45,171	복지관운영비	21,269,117
		이월금	74,085,758
합계	194,146,825	합계	194,146,825

멋을 아는 20~30대
남성을 위한 캐주얼 브랜드 “위캔더스”

WKNDRS

위캔더스

☎ 070-8801-9696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신관 401호

<http://wkndrs.com>



“위캔더스(WEEKENDERS)”는

복잡한 도시 속에서 자신만의 재미있는 일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브랜드입니다.

최신 트렌드를 선도하며 남심을 사로잡는 감각적인 패션 아이템과 의류를 전문으로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상품을 선보이고 있고,

연예인 의상 협찬도 진행하며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위캔더스에서는 많은 의류 상품을 태화복지관에 기증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이웃을 위한 넉넉한 마음을 보내주신

위캔더스 임직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큰
평화
온전한
조화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06353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185 Tel. 2040.1600 Fax. 2040.1791

www.taiwha.or.kr  www.facebook.com/taiwha

